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낯선자들의 사회

안톤숄츠
코리아컨설트 대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주로 농촌에 모여 살았던 인구는 서울과 그 인근으로 옮겨 수도권은 이제 전 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그 외 다른 주요 도시는 누구라도 기회만 있으면 옮겨가는 곳이 되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디딘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껏 보아오던 급격한 도시화는 생각보다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설연휴 서울에서 있었던 층간 이웃의 살해사건은 이런 급속한 사회 발전의 부작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한 남자가 두 명의 이웃을 살해한 이유가 층간의 소음 때문이라고 했다. 이 섬뜩하고 잔인한 범죄로 온 나라 사람들이 경악했고, 모두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놀랐다. 사건 발생 이후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축 관련 또는 입주민 준수 규제 항목 등에 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설을 쇠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동안 나는 서울이 텅 비여 있는 것 같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다른 편 상행선에 비해서, 또 다른 날들에 비해서도 매우 한산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있던 길이라 서울 안은 몹시도 한가로웠다.

그러고 보면 서울에는 본래 서울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가득 모여 사는 곳으로,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주한 이방인들의 거대한 도가니다. 어쩌면 이것이 위에 언급한 그런 범죄를 보다 쉽게 야기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다른 곳으로부터 오고, 새로운 고향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거리에 아무리 사람들로 넘쳐나도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실 이해하지 못한 낯선자들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아파트에서 사는 우리네의 라이프 스타일은 명백히 이런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한다. 한 예로 광주에 처음 왔을 때 아파트에서 살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 광주 방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살게 되었다.

그 동네엔 한국 그 어디에서도 흔한 아파트 한 동 없이 오직 올망졸망 모여있는 작은 집들과 간혹 가다 남아 있는 한옥이 전부였다. 우리는 동네 이웃들을 잘 알았고 나이 많으신 이웃 어른들은 햇빛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길가에 나와 앉아 한나절 내내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셨다. 동네 곳곳 어디서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후 아파트가 모여있는 신지구로 이사를 오면서 전에 느껴왔던 이웃 간의 정겨움은 찾기 힘들었다.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도 몇 년을 가깝게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다른 이방인과 더불어 사는 나는 그들에게 한낮 이방인에 불과하단 생각에 슬픈 느낌 마저 든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 출신인가가 언제나 중요하다. 사람들은 어느 김가인지, 이가인지 서로에게 물어보고 출신지역이 크게 같기라도 하면 친척이나 가족을 만난 듯 반가워한다. 서로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왔는지에 대해 연관짓는 것은 사회적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 중요하리라.

현 서울은 어디에서도 어떻게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다. 명절 연휴로 비어있는 도시는 그것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큰 도시들에서의 익명성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존재하며 익명성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겠는가? 절대 아닐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안다면 그들도 당신에게 얼굴없는 낯선자로 행세하진 않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나의 단순한 이론은 어쩌면 이번 사건에 부적절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공동생활에서의 소음으로 빚어내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선 규제를 만들어 시설을 보강하고, 공동생활 준수 강령이라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우선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옛날 한지붕 아래에도 여러 가족이 모여 살지 않았던가? 좁은 골목, 지금 보다 좋지 않은 건축 자재 및 기술로 만들어진 집들이 모인 한 동네에서도 이웃과 정겹게 살지 않았는가?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근래 더욱 극성스러워진 5살배기 아들이 우리 집 아파트에서 뛸 때마다 하는 것은 뛰지 말라거나 다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의 이웃들과 가깝게 서있으면서도 어색한 침묵 속에 우두커니 서있을 것이 아니라 인사를 건네며, 적어도 누군가 먼저 내려야 할 그때까지 몇 초간이라도 말을 걸어 보는 것이다.

의료칼럼

척추질환 정확한 진단이 우선

구 희 상
광주새우리병원 신경외과 원장

인간은 누구나 평생에 한번 이상 척추에 통증을 경험한다. 그만큼 척추에 관련된 많은 질환명이 있고, 이름도 생소하리만큼 많은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의료기관 및 시설에서 척추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여러 미디어를 통한 의료정보 또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환자들은 본인의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며, 심지어 치료까지도 자신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시행되는 대증적인 요법으로 적확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환자를 보다 보면 대개 본인이 디스크라고 단정짓고 오는 사례가 많다. 물론 디스크와 관련해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나 실제 검사를 시행해보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디스크(디스크 수핵 탈출증)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엉치뼈나 무릎, 발목 등의 통증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무릎이나 발목 등에 다양한 치료를 받고 오는 환자들도 상당수다.

요통(요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및 하지통증이 있는 환자는 통증 원인이 허리쪽인지 아니면 고관절, 무릎이나 발목 등의 관절내지 근육, 말초신경, 혈관이상 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치료도 다르게 시행돼야 한다. 또한 고령인구에서 흔한 척추관협착증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걷다가 쉬어가는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대다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종종 하지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의 동맥경화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 및 뇌질환, 말초신경장애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 허리굽은 노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 나이 먹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다. 물론 척추 구조물의 퇴행성 변화 및 생활습관(동양의 경우 좌식생활 및 농업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 개인차에 따른 척추 구조물의 기능적인 문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검사상에서 오래된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대개 노인들의 경우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주저앉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쉽게 발생한다. 처음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이 극심하지만 신경학적 이상만 없다면 대개 시간이 지나면 통증자체는 호전돼 뼈가 골절됐다는 생각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통증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척추체는 더욱 주저앉게 되고 굴곡변형이 생기면서 허리가 굽게 되는 것이다. 처음 통증이 발생했을 당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압박골절을 진단하고 절대안정 및 보조기 착용 원칙만 잘 지켰더라도 심하게 허리가 굽는 것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 외에도 드물지만 극심한 요통으로 내원하는 환자 중 상당수는 흔히 삐끗해서 근육이 놀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 척추염이나 전이성 암 등 의외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통증은 우리 몸의 이상을 알리는 경보등과 같다. 이상이 생기면 즉각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기고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열다

나 석 주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략기획처장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손톱 밑 가시 뽑기'라는 키워드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손톱 밑 가시'란게 그렇다. 초기에는 통증이 미미해 모두가 사소한 상처로 치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사이 고통은 심해지고 결국은 곪아 터지는 지경까지 이르곤 한다.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신경쓰이는 존재다.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에도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들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창립 10주년을 치르고 조직의 유년기를 정리했다. 이제는 당당한 중견 공기업으로서의 새롭고 획기적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공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어느 기업보다도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땀흘려왔다. 그 결과 선진화된 경영과 최고의 안전운행 서비스로 대내·외에서 큰 박수를 받아왔다. 올해는 공사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해. 바로 '변화와 혁신'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의 경영 노하우는 안정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너리즘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 폐단은 과감히 뿌리 뽑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도전에 임해야 하는 시기라는데 전 임직원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에 공사의 역량을 총집결, 최고의 안전운행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쟁력 있는 사업활로를 적극 모색하는 새로운 공기업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공사는 보다 넓은 시야를 키우고자 한다. 지난해 단행한 '현장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최근의 국가 R&D 기술개발 사업 참여 등 미래형 경영시스템으로 조직의 체질을 바꿔온 바 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통합성과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신사업 개발 등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업무 분야별로 전문인재를 발굴해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 파격적인 인사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사의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갈 '장인'을 적극 양성하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목표점을 제시, 업무 매너리즘을 제거하고 공사 경쟁력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창의혁신위원회'라는 미래대비기구를 신설, 뜨거운 젊은 피가 중심이 되어 이끌고 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저마다 'Young한 CEO'임을 자처하는 열정적인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향을 도출해내면, 경영진 차원에서의 심도깊은 재검토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식경영 기반이 되는 self-driven 프로그램,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BPR)추진과 더불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시나리오 경영기법 도입 등 다양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며 최고의 혁신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사의 변화와 혁신 중심에는 '시민의 행복'이 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꾸겠다'는 창조적 마인드와 '바꿔야 산다'는 시대의 요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광주지하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손톱 밑 가시'는 지체없이 뽑아내고 '시민의 사랑'을 영양분 삼아 내실있는 도약을 펼쳐가는 공사의 도전에 시민들의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린다.

은행 수수료 체계 통일하고 원가 근거 제시해야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은행 업무 시간 외에 현금인출기인 ATM기계를 자주 사용한다. 아마도 자영업뿐만 아니라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ATM 기계를 이용해 돈을 넣거나 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 ATM기로 돈을 찾아 쓰려면 500~1200원의 수수료를 문다.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부칠 때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500원이지만,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돈을 보내면 최대 4000원의 수수료를 낸다.

이뿐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몇십 만원의 근저당설정비와 신용평가수수료를 물고,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도 대출금의 최대 2%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문다. 이 또한 필자가 집을 장만해서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 쓰면서 전부 다 경험한 것이다.

은행들은 또 증권투자를 위한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액의 1%가 넘는 판매수수료를 받아가고 그 이후에도 매년 1% 정도의 판매보수를 떼간다. 또 주가 하락으로 펀드에 든 사람이 손해를 봐도 매년 꼬박꼬박 수수료를 받는다. 여기다가 저소득층과 고령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 창구에서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빼가는 수수료가 1년에 4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은행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수료를 매기는 근거가 뭔지 알 수가 없고, 수수료의 원가도 잘 모른다. 더 웃기는 건 똑같은 서비스에 어느 은행은 600원을 받고 다른 은행은 3000원을 받기도 한다.

금융회사들은 입장을 바꿔 소비자인 국민 쪽에 서서 이걸 생각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은행마다 제각각인 수수료체계의 통일성과 원가 근거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社 說

취업난에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라니

'청년백수 100만 시대'를 맞아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반면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이른바 구인구직 '미스매치(mismatch·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가 나서 양극의 불일치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지역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77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9명(18.5%)이 증가한 반면 전국의 부족인원은 26만7253명으로 같은 기간 4250명(2.9%)이 감소했다. 광주 기업들의 부족인력이 크게 늘어난데 비해 전국의 부족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광주지역 대졸자의 취업률은 1만9248명 중 1만1217명이 취업, 58.5%에 그쳤다. 지난 한해에만 대졸자 8025명이 '백수'가 된 셈이다.

실업률은 높은데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은 취업희망자와 기업의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희망자들은 더 높은 보수와 복지를 원하면서 힘든 일은 꺼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 하남산단 A사는 매년 5명 이상의 생산직을 채용해야 하지만, 지난해 사실상 1명도 뽑지 못했다. 2명이 입사했으나 첫 월급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3년만 지나면 연봉 3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뿌리치는 게 현실이라는 회사 대표의 하소연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구직자와 구직난이 심화되면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은 함께 중지를 모아 근로조건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직자들도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날뛰는 강력범, 기는 경찰, 불안한 시민들

광주에서 하룻밤 사이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이 최근 편의점 등 현금 취급업소와 아파트·주택가를 중심으로 치안활동 강화에 나섰지만 되레 강도사건이 터지면서 치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9일 새벽 2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편의점에 흰색 마스크를 쓴 괴한이 침입, 근무 중이던 여종업원(19)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전날 밤 9시께도 운암동 임모(74)씨 집에 흉기를 든 30대가 들어가 현금을 강탈했고, 지난달 30일에도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의 치안 부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추이'에 따르면 광주는 2004년 이후 발생 건수가 단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았다. 강간·강제추행 사건도 2009년 525건에서 2010년 586건, 2011년 72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범인 검거율은 2009년 67.9%에서 2011년 59.2%로 오히려 떨어졌다. 범죄 발생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데 반해 검거율은 떨어져 치안력 부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치안'을 외치고 있으나 이 모두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강력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큰데다 지능화·흉포화하는 성향이 강해 예방은 물론 검거를 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무엇보다 민생치안과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경찰 인력을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서둘러 범인을 검거하지 않으면 사건 재발은 불 보듯 뻔하다. 행정당국도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 확대 등 경찰과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소영 대 성시경

박근혜 정부의 인선에 대해 '장고 끝 악수'라는 정치권의 넋두리가 나오고 있다. 윤창중, 이동흡 인선에서 박근혜 새 정부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더니 문제 투성이의 사람들만 고른 것 같다는 한 숨마저 터져 나온다.

급기야 박근혜 내각은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경기고)으로 변했다'는 비아냥마저 듣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인선에 성·시·경 출신들이 대거 기용된 것을 빗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 내각이란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서 '고소영이 지고 성시경이 뜬다'는 비꼬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 하겠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3명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으로 특정 사립대학 출신이 청와대 주요직을 싹쓸이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초대 인선에서 고려대 출신 수석비서관은 2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각 및 청와대 인선 24명 중 성균관대 출신은 6명이다. 서울대(7명)에 이어 2위로 두 대학을 합치면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정홍원(법대 63) 총리 후보자가 법대 후보를 챙겼다. 인수위 총괄간사인 유민봉(행정 76) 내정자가 청와대에 성균관대 인맥을 구축한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도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후속 인선에 따라 '성균관 라인'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고시 출신이 절반이 넘고 경기고 졸업생이 많고 성균관대 출신이 과도하기 때문에 성·시·경이 뜬다는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됐다.

의도적으로 한 대학을 선택해 밀어줬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생각한다면 '고·소·영 이니 성·시·경'이니 하는 비아냥은 피할 수 있다. 인사가 만사인데 박근혜 당선자의 리더십이 아쉽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